TOPMUSEUM

도쿄도 사진미술관 2019-2020 전람회 일정



동굴로부터

10월 1일(화)~11월 24일(일)

인간은 주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적 정보를 가장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은 사진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광경을 봐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는 다르며,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았을 때 떠올리는 감상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동굴'이라는 모티브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 이제껏 생각해본 적 없는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본 전람회는 19세기의 화학자이며 광학 연구자인 존 허설 (1792-1871)이 카메라 루시다'1를 이용해 그려낸 '동굴' 드로잉에서 고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사무 제임스 나카가와 (1962-)가 촬영한 오키나와의 동굴 '가마'와 기타노 겐이 포토그램*2으로 작업한 신작, 독일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게르하르트 리히터(1932-)의 작품군 등 현대 작가의 신작 및 근작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진과 현실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피오나 탄, News from the Near Future, 2003년 비디오 프로젝션 작가 소장, ©Fiona Tan, courtesy of Wako Works of Art

A 800엔 B 700엔 C 600엔

야마자와 에이코 나의 현대

11월 12일(화)~1월 26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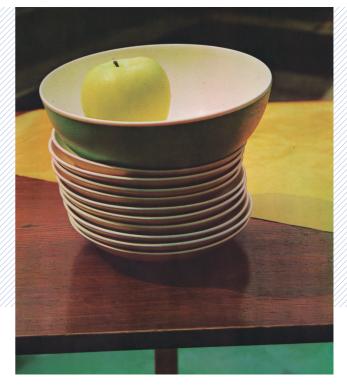
일본 여성 사진가의 개척자이자, 사진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 표현을 탐구한 야마자와 에이코의 탄생 120 년을 기념해 전략회를 개최합니다.

1899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야마자와 에이코는 도쿄의 사립 여자미술학교에서 일본화과 선과를 졸업하고 유화와 사진을 독학한 후, 1926년 혼자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야마자와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미술학교에서 유화를 배우는 한편, 현지에서 알게 된 미국인 사진가 콘수엘로 카나가의 조수로 일하며 사진 기술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1929년 귀국 후에는 오사카에 사진 스튜디오를 열고 포트레이트 사진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전쟁 후에는 작품의 방향을 전환하여 추상적인 사진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8년 고베로 이주한 시기부터는 더욱 정력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간사이 지역의 전위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 크게 인정받게 됩니다.

본 전람회에서는 현존하는 1970~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야마자와의 추상적 표현의 원점을 보여주는 1960년대의 사진집과 전쟁 전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포트레이트 작품, 그리고 관련 자료 등 약 130여점을 전시합니다. 아울러 참고 자료로서 야마자와가 시대적 조류 속에서 영향을 받았던 1920~50년대미국 작가들의 작품 약 20점도 함께 소개합니다.

야마차와 에이코 《Still Life》(Far and Near), 1961년

A 700엔 B 600엔 C 500엔



A 일반 B 학생 C 중고생·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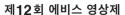
일본 신진 작가전 vol.16 지근거리의 우주

11월 30일(토)~1월 26일(일)

도쿄도 사진미술관은 사진 및 영상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창조적 정신을 지원하고 장래성 있는 작가를 발굴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신진 작가전」을 개최합니다. 제16회째를 맞이하는 2019년도의 테마는 '지근거리의 우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안에 처박혀 있거나 멀리 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넓은 세계를 마주하려 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책상 위 화면으로 세계 곳곳의 영상을 볼 수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 쇼핑을 통해 전 세계의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얼한 현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VR 영상 체험이나 홈시어터 등을 통해 마치 집 안에 세계가 존재하듯, 집 안에서도 무엇이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전과 달리 사람들은 글로벌화로 변화하는 일상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전람회에서는 주변 환경에서 깊은 우주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작품으로 제작하는 신진 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가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에 비해 멀리 떠나지 않는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출품 작가는 아이카와 마사루(1978-). 이노우에 사유키(1974-), 사이토 하루미치(1983-), 하마다 유지 (1979-), 후지야스 준(1981-), 야기 료타(1980-)입니다.

A 700엔 B 600엔 C 500엔



2월 7일(금)~2월 23일(일)

에비스 영상제는 2009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에비스 지구에서 전시, 상영, 라이브 퍼포먼스, 토크 세션 등 복합 행사를 개최해 온 국제 영상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비스 영상제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입장 무료 ※정원제 프로그램(상영, 라이브, 심포지엄 등)은 유료

사진과 패션 (가칭)

3월 3일(화)~5월 1일(금)

사진과 패션의 관계성은 인터넷이 보급된 200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자, 기자 등 한정된 사람들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패션쇼와 전시회의 모습도, 지금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를 통해 시차 없이 손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머물지 않고, 셀카에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도 이전의 패션 사진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작전 어필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진가와 독립적인 스탠스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패션 잡지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동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쳐,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사진과 패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의 참고 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전람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작품과 자료, 토크 이벤트와 퍼포먼스 등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며 사진과 패션의 관계성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A 800엔 B 700엔 C 600엔



다카하시 교지,《Tokyo Girl》from〈The Mad Broom of Life〉 1991-93년, 작가 소장(참고토판) @Kyoji Takahashi, Courtesy of nap gallery

△ 익반 R 한생 C 주고생·65세 이상



사이토 하루미치, from (Sekaisagashi), 2019년

일본 초기 사진사 간토편 에도 막부 말기~메이지 시기를 사진에 담다

3월 3일(화)~5월 24일(일)

도쿄도 사진미술관은 일본 전국의 미술관, 박물관, 자료관 등 공개 기관을 소유한 시설이 관리 중인 막부 말기~메이지 시기의 사진 및 자료를 조사하여 체계화한 「일본 초기 사진사」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제1회 '간토 지방편」에서는 간토 지방의 박물관과 도서관, 문서관, 향토 자료관 등이 실시한 막부 말기~메이지 시기의 사진 자료 소장 조사와 오리지널 사진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일본 초기 사진사를 더듬어 나갑니다. 또한 해외에 존재하는 간토 지방과 관련된 사진도 전시하여 일본의 초기 사진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A 700엔 B 600엔 C 500엔

시라카와 요시카즈 사진전 영원한 일본 (가칭)

3월 20일(금)~5월 17일(일)

시라카와 요시카즈(1935-)는 '지구 재발견을 통해 인간성 회복으로' 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1969년 출판한 『알프스』를 비롯해. 지금까지 "히말라야』, "아메리카 대륙』, "성서의 세계』, "중국 대륙』, 『신들의 원풍경』、『불교 전래』、『남극 대륙』、『세계 100대 명산』、『세계 100대 폭포』등총 10가지 시리즈물을 발표했습니다. 시리즈의 11 번째 작품 「영원한 일본」에서는 일본인의 긍지와 혼을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이 담긴 중고하고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과 만나볼 수 있습니다.

A 700엔 B 600엔 C 5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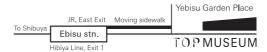


계란지 도쿄도 사진미술관 소장

東京都写真美術館

TOKYO PHOTOGRAPHIC ART MUSEUM

우)153-0062 도쿄도 메구로구 미타 1-13-3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내 TEL: 03-3280-0099 URL: topmuseum.jp



JR에비스역 동쪽출구에서 도보 약 7분 도쿄메트로 히비야선 에비스역에서 도보 약 10분

개관 시간

10:00~18:00(목·금요일은 20:00시까지, 7월 18일~8월 30일의 목·금요일은 21:00 까지) ※입장은 폐관 시간 30분 전까지

휴관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하며 그 다음 평일에 휴관), 연말연시, 2020년 1월 27일(월)~2월 6일(목), 20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